

<h1>해명자료</h1>	배포일시	2020. 05. 23.(토)	 <b>통계청</b>
	담당부서	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	
	담당자	과 장: 정동욱(042-481-2264) 서 기 관: 김지은(042-481-2265)	

「정부 통계분식은 나라 망치는 범죄행위」  
사설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함  
- 조선일보 '20.05.23.(토) -

<p><b>&lt;언론보도내용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선일보는 '코로나로 이마저 중단되자 노인 세금알바를 일시휴직자로 분류해 ... 일시휴직자가 취업자로 잡히는 맹점을 이용했다'라고 보도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'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87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장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질문방식이 달라졌다고 ...'라고 보도</li> </ul> <p><b>&lt;해명내용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(ILO)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, <b>코로나19 확산 前後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업자의 국제기준은 ①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② <u>일시적 병, 사고, 연가,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</u> ③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또한 「'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」 결과 중 기간제로 추가 포착된 비기간제의 추정규모와 근거에 대해 추가 브리핑(19.10.31.)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바 있음</li> </ul>
---